



전국체전 광주대표 선전다짐 다음달 6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이 28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월드컵 우승 주역 여민지·김아름

“꿈 이뤄 행복... 계속 지켜봐 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바란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해요. 어머니 아버지께는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말할래요.”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8골을 쏟아내며 FIFA 주관대회 첫 우승컵과 득점왕, MVP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여민지(17·함안대산고)가 모든 성과를 동료와 가족의 공으로 돌렸다.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여민지는 28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대회 전에 8골 넣겠다고는 했지만 정말 다 들어갈 줄은 몰랐다. 친구들이 패스를 잘 해줘서 나한테 기회가 많이 온 덕에 가능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여민지는 이어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지) 소연 언니가 실버슈를 들고 시상대에 올라간 모습을 보고 나도 골든슈를 들고 시상대에 올라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실로 이뤄져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너무나 좋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여민지는 인과 속에서 겨우 찾아낸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고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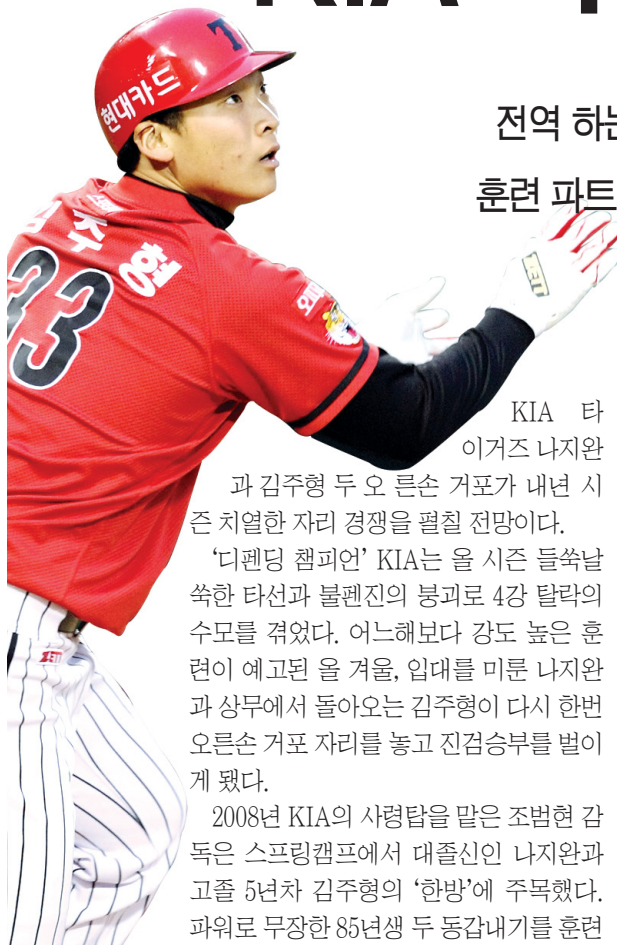
여민지는 또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20세 이하 월드컵이나 런던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도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싶다”며 “한국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며 웃었다.

주장 김아름(17·포항여전자고)은 “지금 좋은 성적을 내서 관심 주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키커로 나선 장슬기(16·충남인터넷고)는 “솔직히 부담이 컸는데 그래도 자신 있게 쳤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2010 U-17 여자월드컵 우승의 주역 여민지(왼쪽)와 김아름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차세대 거포 누가 될까



전역 하는 김주형 VS 입대 미룬 나지완 훈련 파트너로 묶어 내년 시즌 파워 경쟁

파트너로 묶어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화력 더하기에 초점을 맞췄다.

조 감독의 기대를 모은 두 거포는 스프링캠프 청백전에서 양팀의 4번 타자를 맡아 훈련을 주고 받으며 전초전을 벌였다. 이해 나지완은 신인 최초로 팀 개막전 4번 타자를 꿰차며 거포 싸움의 유리한 고지에 섰지만 프로의 높은 벽에 막혀 개막 한 달도 안돼 2군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후반기 신인답지 않은 파워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주형은 62경기에 나와 0.226의 타율을 기록했다. 홈런도 2개에 그치면서 캠프의 기대는 아쉬움으로 끝났다.

2009년은 두 거포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 해였다. 김주형이 상무에 입단하면서 팀을 떠났지만 나지완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주전자리를 굳혔다. 12년만의 우승을 확정짓는 한국시리즈 한방까지 터트리며 프로야구의 스타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러나 나지완의 2010시즌은 실패에 가까웠다. 나지완은 올 시즌 109경기에서 타율 0.215, 15홈런 53타점을 기록했다. 아시아안게임 대표팀에 대한 부담감과 무릎부상으로 부진했던 나지완은 대표팀 탈락 여파로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하면서 팬들에게 애증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군입대를 놓고 고민했던 나지완은 최근 조범현 감독과 면담을 갖고 명예 회복을 위해 4번째 시즌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김주형이 내달 30일 제대를 앞두고 있어 차세대 오른손 거포의 2라운드 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나지완은 대륙간컵 대표팀 참가 요청을 받았지만 대회 참가 대신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2011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역을 앞두고 있는 김주형은 오는 6일 진주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참가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11월 남해캠프에서 재회하게 되는 나지완과 김주형의 방망이 싸움 양상에 따라서 KIA의 2011시즌 구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축구 한·일전 입장권 내달 1일부터 판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1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는 행 초청 한·일 축구국가대표경기 입장권을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ticket.com) 인터넷 온라인 판매, 전화예매(ARS: 1544-1555)를 이용하거나 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구

입할 수 있다. 가격은 특석 7만원, 1등석 5만원, 2등석 3만원, 3등석 및 응원석 2만원이다. 축구협회는 특석 구매자와 경기 당일 선착순 입장권 등 총 2만 명에게 공식 머플러를 선물한다. 또 경기 직후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을 대상으로 대표팀 사인 볼 200개도 증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무인텔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